

APAP6 → SPECIAL BOOK CURATION

2019

READ PUBLIC ART IN BOOKS

특별 북큐레이션 → 책으로 공공예술 읽기

### 주제 서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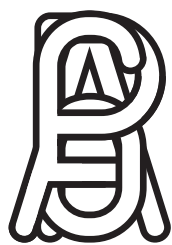
#### 어떻게 함께 할까?

다가올 미래의 공공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삼스러울 수 있지만, 예술의 개념과 형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술의 의미가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지듯이, 우리가 ‘공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끊임없이 변합니다. 가족, 마을, 도시, 국가 등 함께 모여 살아가는 집단을 ‘공동체’라 불러 왔다면, 우리는 오늘날 새로이 변하고 있는 공동체의 형태에 주목하고 그 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을 만들어 내는 연결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세 번째 북큐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상상해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현실의 문제를 첨예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델에서는 가리고 잊혀진 주변부의 존재들, 혹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존재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최근의 사회적, 예술적 담론은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에 반대하고 남성성을 중심으로 기획되어 온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안적인 질서를 만들어 보기 위해 실험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실천들 속에서 우리는 공공과 예술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 서가는 이질적이고 상이한 것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공동을 상상합니다.

\* 특별 북큐레이션은 공공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공공예술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질문하며 하나의 주제를 마련하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문학, 역사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주제 서가가 마련됩니다.



APAP6 → SPECIAL BOOK CURATION

2019

READ PUBLIC ART IN BOOKS

특별 북큐레이션 → 책으로 공공예술 읽기

### Theme Cabinet 3:

#### How can we be together?

What will the public art of the future look like? Since the concepts and forms of art are not fixed, we must constantly ask this question. Just as the meaning of art varies from age to age and from region to region, what we can call "public" is constantly changing. If we have called "community" groups that live together like families, villages, cities, nations, etc,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forms of community today and create the new concept. And we try to invent ways of connecting to create common.

The third book curation with the 6th APAP asks what community we should imagine and how we can create it. And here's a lot of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and grasp the problem in the world and come up with alternatives. In particular, in the traditional community model, we look back at those hidden and forgotten beings or those who did not belong to the community.

Recent social and artistic discourse opposes human-centered values and raises questions about the order that has been designed around masculinity. This is the beginning of how the members of a society, diverse beings, live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rtists are often interested in creating new relationships and experimenting alternative orders in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In these practices we will reflect on the meaning of the public and the arts. This curation explore how different things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and they can be in heterogeneous. And we imagine a healthy common to be together.

\* Special book curation examines public art in the past and today and asks what public art should be in the future. It prepares a topic, and covers various categories such as humanities, society, science, technology, art, literature, and history with a selection of books. During the 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there will be three rounds of special book curation section in total with different topics.